

지역 매아리



성덕면사무소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성덕면사무소(면장 서상원) 직원 10명은 본격 영농철을 맞이하여 10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덕면 석동리 도하마을 이경호 농가의 육묘장을 찾아 농가의 지도에 따라 모판 4000판 나르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모내기철 단계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실정에 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농가주 이경호씨는 적기에 일손 돕기 지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서상원 면장은 "많은 시간동안 돕지는 못했지만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손 돕기를 통해 소통하고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농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자동차세 35억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완주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19167건, 본세기분 35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기본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연납차량 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6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고 있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단속

김제시, 7월까지 식육판매업자 대상 홍보·지도 8월·9월 휴가철·추석 명절 대비 집중단속 나서

김제시 축산진흥과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축산물 이력법이 작년 12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시행되었고, 정부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를 홍보하기 위해 영업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대중교통 및 전문지 광고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홍보에 노력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의 정육점에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집중단속을 하여 식육판매업자를 지도하고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의 대상으로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육판매업자로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업

자가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수입돼지고기의 이력제 표시를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6월과 7월엔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할 계획이며, 8월과 9월에는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단속을 통해 새로운 제도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감염병 매개 해충 조기 차단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방역반 편성, 소독기 무료 대여 등

완주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감염병 매개 해충 조기 차단에 나섰다.

완주군은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읍·면 및 사업소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방역소독 방법 및 약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교육과 함께 방역장비를 정비해 각 읍·면에 배정하고, 방역반을 편성, 감염병 발생의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하수구, 정화조, 웅덩이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유충구제를 지속적인

으로 실시해왔으며, 방역소독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소독기 대여를 통해 공공방역이 어려운 개인 농가와 시설 등에 주민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독려해 방역사각지대를 해소, 방역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소독장비가 필요한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대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비와 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후 1인 1대 최대 3일간 대여가능하며, 약품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등산로와 산책로에 설치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5대, 해충유인살충기 222대, 진드기방제에어컨 11대의 방역장비들도 가동을 시작했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일정에 따라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해경 완주군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집중 방역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감염병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역활동도 중요하지만 모기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가정도 집 주변 웅덩이, 수풀 등 모기유충서식지 제거에 동참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290-3044)으로 연락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구강 보건의 날 캠페인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제74회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아 최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은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강질환의 사전예방에 기본이 되는 바른양치 생활터 교육과 더불어 점심 식사후 칫솔질 습관 생활화를 위한 집중홍보로 진행되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의하면 일 평균 칫솔질 실천율은 아침 식사 후 79.0%, 저녁 식사 후 79.2% 인 반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51.1%로 전국 시군구별

평균 55.2%와 비교했을 때 낮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구강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스스로의 건강생활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김제시보건소는 '제74회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아 가두 캠페인을 했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구강병은 평상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통한 구강 건강관리 향상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고산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일원 6500㎡에 예산 1억원(국·도비 6500만원)을 투입, 무궁화 244주를 식재 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무궁화 '활짝'

완주군 고산면, 산림청 공모 선정

완주군이 고산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일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완주군은 고산면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일원 6500㎡에 예산 1억원(국·도비 6500만원)을 투입, 흉단심계와 백단심계의 무궁화 244주를 식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무궁화 식재는 완주군이 산림청에서 소속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19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무궁화식재와 함께 해설관, 산책로를 설치해 주민편의를 높였다.

완주군은 나라꽃 알리기와 나라사랑 고취를 위해 주요 도로변과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동산 등에 7만100여 주의 무궁화를 식재·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나라꽃 무궁화 100리길을

조성하는 등 전국 최고의 메카도시로서 매년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과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예초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회 연속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지와 무궁화 명품가로수길로 선정돼 전국적인 무궁화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무궁화 메카도시 완주가 앞장서서 나라꽃 무궁화가 일상에서 사랑받는 꽃이 될 수 있도록 무궁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의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현재 전국에 124개소가 조성돼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청년인턴사업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청년 일자리의 대표 핵심정책이자 공약사업인 '청년인턴사업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인턴사업제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18세~39세 청년 중 공고일 기준(19.6.3.)재직기간이 6개월 이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30만원씩 분기별 지급,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일 가능하여야 하며, 소득조건은 월 과세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은 주 36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유사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를 참고하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acktms@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Imsh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background image of a large building.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and '임실치즈'.